

“MZ 직원 아이디어가 미래”... 저축銀, 수평적 소통 ‘박차’

신입·주니어 직원 의견 ‘환영’
대표이사과 소통하고 경영 반영
보상체계 마련해 아이디어 독려
협의체 출범 등 조직문화 개선

저축은행이 보수적인 업무 방식에서 탈피하고 있다. 경영 전반에 주니어(주연차) 평직원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고 수평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추세다. 주니어 직원들의 역량을 극대화해 시대에 걸맞은 도전적인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신입사원 및 주니어 직원들의 의견 개진을 장려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주니어 직원들과 소통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영에 적극 반영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JT저축은행은 사내 메일을 활용해 대리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



최성욱 JT저축은행 대표이사과 주니어 직원들이 아이디어 공모에 참여하고 있다. /JT저축은행

제안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상품 개발, 마케팅, 전략 기획, 교육 등 경영 전반에 걸쳐 본인이 생각하는 업무 개선사항을 대표이사에게 메일로 전달하면 된다. 제안된 아이디어들은 관련 유관부서에서 피드백해 전달한다. 성과가 있을

경우 보상도 지급한다. 젊은 직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회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파악하고 트렌드에 민감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다.

SBI저축은행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사내 게시판을 운영 중이다. 사내 게시판을 통해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평가해 업무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로 운영된다. 직급에 상관없이 누구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주어진 틀 없이 자유롭게 보고하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웰컴저축은행은 경영 아이디어에 따른 보상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참신하고 실용성 넘치는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상여금 등의 방식으로 높은 보상체계를 제공한다.

보상에 대한 결과는 전 임직원에게 공유해 아이디어 제공을 독려한다.

한편 조직문화를 전면 개선해 주니어 직원들과의 수평적 소통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OK저축은행은 MZ세대와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엔 입사 1년을 맞이

하는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구성된 차세대 리더 협의체, 주니어 보드를 출범했다. 주니어 보드는 조직문화 개선 및 발전을 위한 창의·혁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임직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소통 창구 역할을 맡는다.

주니어보드 1기로 활동하는 임직원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조직문화와 업무환경 개선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토론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를 경영 및 업무환경에 반영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신입사원과 젊은 주니어 평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부담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업 문화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기존 정형화된 업무 방식을 벗어나 젊은 직원들의 도전적인 아이디어로 저축은행들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권소원 기자 think@metroseoul.co.kr

“디지털 금융혁신... 증권형 토큰 발행”

이명호 예탁원 사장 신년사
올 경영목표 ‘소통·공감·혁신’



시장형 혁신창업성장지원과 기업지원 서비스 체계 강화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 강화 등 7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은 초과이익을 찾아 가격 변동성을 더욱 키우고 있으며, 혁신기술과 비즈니스의 융합을 기반으로 업권간·업권내 참여한 영역 다름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앞서가는 핀테크 회사들은 이미 증권형 토큰을 실제로 발행하고 있고, 전자투표, 증권대차, 명의 개서대행업무 등 경쟁업무에 대해서도 혁신기술로 무장한 경쟁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형 토큰 전용

발행·유통 플랫폼 구축 로드맵을 마련하고, 분산장부에 기반한 새로운 사업모델과 조직체계를 재설계한다는 설명이다. 또 데이터 백업체계 개선, 백업데이터 보호용 EMP(Electromagnetic pulse) 차폐기능 도입, 기간계시스템 용량 증설 등을 통해 IT 인프라의 안정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도입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상생의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제는 ‘함께 하는 상생’이 요구되고 있다”며 “2022년을 ESG 경영 실천의 원년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현대건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5.5조

역대 최대 실적... 3년 연속 1위 쾌거
현대건설이 지난해 마지막날까지 주주 소식을 전하며, 도시정비사업 부문에서 5조원 클럽 가입과 업계 최초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

현대건설은 지난 12월31일 서울 강남의 대표적인 핵심 입지인 삼성역 역세권의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사업(908억원)과 서초구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아파트 리모델링사업(1850억원)을 동시에 수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액 5조5499억으로 최종 마감했다. 이는 현대건설 창사 이래 도시정비사업부문에서 세운 사상 최대 실적이며, 도시정비 업계에서도 최초로 3년 연속 1위 기록이다.

대치 비취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과 잠원 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

링정비사업조합은 지난달 31일 각각 시공사 선정에 대한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우선협상 대상자인 현대건설의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 현대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치 비취타운은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85길 17-8(대치동 951-1번지) 외 6필지 총 4497.90㎡의 대지에 용적률 299.96%를 적용해 지하 6층, 지상 18층, 총 95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와 오피스,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총 공사비는 908억원 규모다.

현대건설은 대치 비취타운의 입지적 장점과 상품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인 디에이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잠원롯데캐슬갤럭시1차 리모델링사업은 서울 서초구 잠원로14길 3(잠원동

50) 일대에 위치한 1만1939.60㎡ 면적의 지하 2층, 지상 14~25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56세대 규모의 단지를 2~3개층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용적률 312.33%에서 100.82% 증가한 413.15%의 용적률을 적용해 지하 4층, 지상 16~28층의 공동주택 5개동 총 284세대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한편 현대건설은 올해 용인 수지 신정마을9단지 리모델링 사업 단독 수주를 시작으로 무려 23곳에서 총 5조5499억원 규모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특히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8개 사업지에서 2조686억원을 수주하는 무서운 뒷심을 보여줬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창사 이래 최초로 도시정비사업부문 수주 5조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업계 최초로 3년 연속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조합원들이 현대건설을 믿고 선택해주신 덕분이다”라고 밝혔다.

/이규성 기자

임인년 첫 달 전국서 5만4181가구 분양

분양 캘린더

일반분양 4만6829가구
사전청약 1만6876 가구

임인년 새해 첫 달엔 2회에 걸친 공공·민간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2일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1월 전국에서는 5만4181가구(임대·사전청약·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일 기준)가 공급된다. 이중 일반분양 물량(미정 제외)은 전국 4만6829가구이며 ▲수도권 2만5383가구(54.2%) ▲지방 2만1446가구(45.8%)다

특히 수도권 물량이 전년 대비 3배가량 급증한 이유는 2회에 걸쳐 예정된 ‘사전청약’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국토부는 ‘4차 공공 사전청약’과 ‘2차 민간 사전청약’의 청약접수 모두 1월 중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청약은 1만6876가구 규모다.

올 분양시장에서 최대 변수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다.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이어 7월부터는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강화된 ‘차주단위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규제를 적용받는다. 금융규제는 올 1월 이후 모집공고를 받은 현장부터 추가 금융규제를 적용 받는다. 이에 따라 수요자들이 중도금이나 잔금

대출 시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달 추가 금융규제가 실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가 주목된다.

이달 사전청약 물량은 총 1만6876가구 규모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엔 예정된 사전청약의 공급 규모는 공공과 민간 각각 1만3552가구, 3324가구다. 남양주 왕숙, 인천검단 등 수도권 내 총 14곳이다. 이 중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 곳은 인천검단으로 2666가구 규모다.

이 외 민간분양도 이어진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포스코건설·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이 ‘시티오씨엘 6단지’ 프로젝트를 1월 분양 목표로 추진 중이다. 단지는 59~130㎡ 1744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지방에서는 호반건설이 충남 천안시 동남구에서는 호반건설이 ‘호반써밋 포레스트’ 76~144㎡ 594가구를 분양한다. 천안삼거리공원을 바로 앞에 둔 ‘공세권’ 아파트다.

롯데건설은 대구시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스카이’ 84㎡ 481가구를 분양한다. 아파트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를 오는 5일 받는다.

대구건설은 전남 무안군에서 ‘오룡 푸르지오 파르세나’ 84㎡ 732가구를 분양한다. 인근에 이미 조성이 완료된 1531가구 규모의 ‘오룡 에듀포레 푸르지오’에 이은 공급 물량이다.

/이규성 기자 peace@

우리는행 “소상공인 등 500만명 수수료 면제”

우리는행이 창립 123주년을 맞이해 123일간 ‘우리고객님 힘내세요!’ 수수료 면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는 오는 4일부터 5월 6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이벤트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고객 ▲코로나19 유공 고객 ▲디지털 취약계층 등 약 500만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 약 166만명과 코로나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기관 종사자 약 21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65세 이상 노년층 약 290만명은 전자금융 이체수수료와 우리는행 ATM 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승용 기자 lsy2665@